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급히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파리에서 도쿄로 옮기셨습니다. 이후 우리는, 우리를 이곳 일본으로 부르신 것처럼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짐을 싸서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리적인 사역지를 옮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콤포트존 (comfort zone)을 떠나 일본 내의 새로운 사역 현장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1주일간 일본 큐슈 지방의 벳푸에 묵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청년부 부장과 멘토로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벳푸 시가 있는 오이타현은 일본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곳이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한 곳입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에서 다시 한 번 일본 열도에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고자, 수 개월간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훈련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웃리치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청년들과 함께 그 땅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서, 원래 예정되었던 아웃리치 일정 그대로 개인적으로 벳푸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1)하나님께서 아웃리치팀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실 때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2) 3년 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2019년부터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3)우리에게 맡기실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퍼즐조각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묵으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날마다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웃리치팀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실 때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는 벳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작년에 한국에서 온 아웃리치팀이 선교사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벳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安心院(아지무)라는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었는데, 이곳은 아직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곳입니다. 청년들은 한국에서 준비해 간 공연과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에 그곳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지장들이 빼곡히 찍혀 있는 보드판이 벳푸 선교사님 교회의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 아웃리치팀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고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웃리치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철저히 시키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년에 방문한 아웃리치팀을 통해서 그곳 주민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해주셨고, 이번에는 우리 아웃 리치팀을 통해서 그곳 주민들에게 일대일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장으로 가득 채워진 종이 보드판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코 이곳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벳푸에서 돌아올 때는, 정식 선교사(백석교단)로 파송받아 동경에 오게 되었습니다.

2) 3년 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2019년부터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제자리에 딱 들어맞아서 순간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날마다 밤을 새며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비즈니스는 아래에 설명하는 CSL선교 사역이 장차 기독교 학교로 세워져 가는 데 필요한 재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다시 기도편지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3) 우리에게 맡기실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시급히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를 5년 전에 일본에 오게 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증거들을 2018년 1월 1일부터 확실하게 보여주셨기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없이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 사역이 바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되는 선교 사역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정민 선교사를 통해서 2년 전부터 CSL(Christ School of Language) 사역의 비전을 주시고 조금씩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사역은 이정민 선교사가 평생을 두고 해 온 한국어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선교사는 박사 전공으로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학습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로 여러 편의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고 또 언어학습전략에 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리 7대학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위원으로서도 활동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정민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5년 가까이 일관되게 섬겨온 사역 한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선교사는 요한복음 전체를 한국어 초급 자용 텍스트로 새롭게 편집하여 읽기 교재를 만들고, 수업 교재로 '한국어 초급'과 '한국어 중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프리토킹 봉사자가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토록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는 일본에서 년크리스천 일본인들이 한국어교실을 통해 마음을 열고 있으며, 실제적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CSL선교회"의 설립과 함께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동역자들의 기도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SL선교회와 협력하여 동경은혜선교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으로서 2년 앞서서 설립된 벳푸의 일본은혜교회(日本恵教会)의 지교회입니다. 이정민 선교사가 작년부터 신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는데, 이에 일본은혜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받아 동경은혜선교교회를 섬깁니다. 이 교회는 일본의 복음화와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사역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CSL선교회는 한 교회에 소속된 사역이 아니라 초교파, 초교회적으로 일본 내 여러 교회와 협력합니다. CSL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새신자(일본인)를, 그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의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담임 목사님께 목양을 부탁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 현지 교회의 부흥과 개척을 돕고, 나아가서는 재정지원, 사역지원 및 아웃리치로 협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짐을 싸서 새롭게 명하신 곳으로 떠나라고 한다면 떠날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밤새워 선교사님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도전을 받고 여러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치열했던 6일간의 용광로 같은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 서면으로 나누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네요.

부디 이 편지의 수신자 한 분 한 분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기도에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방법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떠밀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예배>

- 매주 주님의 임재와 회복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이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합심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스태프 및 동역자>

- 사역의 주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도록
(CSL강사 및 프리토킹 자원봉사자, CSL 운영진들)
-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사역방향에 마음을 합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 장소: CSL선교회가 학교로 사용할 건물을 구하도록(주말에는 교회로 사용)
- 재정: 월별 운영비와 초기비용(건물 보증금+수업용구)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인규&이정민 선교사>

- 이사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여 매순간의 모든 선택에서 이성이 아닌 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 재정동역자들은, CSL선교회의 동역자로서 이 사역을 함께 하는 운영진들이 됩니다.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재정동역자 정보]를 클릭하여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좌에 1천엔(1만원)입니다. 재정 사용에 관한 모든 내용은 CSL선교회 홈페이지의 [운영자]란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년크리스천들의 언어파트너로서 주1회 1시간씩 10회간 자원봉사로 협력해 주실 분들은 [강사/언어파트너 지원]을 클릭하여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SL 홈페이지 <https://www.cslmission.org>
- 한국계좌 우리은행, 이인규, 1002-158-235527
- 일본계좌 ゆうちょ銀行【店名】〇五八【店番】058【普通預金】【口座番号】8169644 リジョンミン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동역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2018.01.20. 이인규&이정민 선교사 드림